

영끌족 ‘금리 공포’에 잠 못 든다

고물가·고금리 ‘이중고’…광주·전남 4월 가계대출 잔액 60조 육박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967조7000억…변동금리 비중 70% 넘어

“금리가 오르면 뭐해요. 물가 상승을 완전히 잡지도 못하고 주식 투자하고 집 마련하려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에게는 폭탄이 될 걸요. 빚이 무섭네요.”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각종 지역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자 부담을 토로하는 글이 오르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금 금리는 물론 시중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대출로 생계를 꾸려온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정도로 무리해 집을 사거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출을 받은 가계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광주·전남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58조3910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한다.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51.5%에 해당하는 30조469억원이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했다.

문제는 지역민들은 가계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47.2%(27조5490억원)를 2금융권(비은행)에서

빌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공포’는 주식시장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치솟으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는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는 등 불안정한 금융시장도 이같은 외국인 투자 이탈에 한몫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6월 주식거래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식 거래대금은 2020년 3월(5조9843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에 다시 5조원으로 주저앉았다.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은 5조7166억원으로, 전달보다 11.6%(~7529억원) 줄었다.

2020년 1월 3조840억원에 불과했던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안정해진 금융시장을 틈타 2월 3조7536억원, 3월 5억984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소액투자자를 가리키는 ‘개미’ 투자 열풍으로 지난해 1월에는 광주·전남 주식투자 22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주식투자는 시들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美 물가 충격에 코스피 하루만에 하락 반전

옵션만기일 기관 5000억 순매도…외국인·개인 순매수

코스피가 간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폭등 여파에 하루 만에 반락했다.

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29포인트(0.27%) 내린 2322.32에 장을 마쳤다.

전날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상승 마감했던 지수는 간밤 미국 소비자물가 급등 여파에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0포인트(0.52%) 낮은 2316.41에 출발해 오전 중 2307.69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정점 통과 가능성

이 부각되면서 점심 무렵 상승 반전해 2340선에 근접하기도 했으나 이후 재차 상승 폭을 반납하는 등 등락 끝에 2320대에서 마감했다.

옵션만기일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312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특히 금융투자가 594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952억원, 1045억원 순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312.1원에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소비자물가 급등 여파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9.1% 올랐다. 이는 전월의 8.6%보다 높은 수준으로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른 종목 수는 433개, 내린 종목 수는 418개였다.

코스닥지수는 2.90포인트(0.38%) 오른 766.08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0.64포인트(0.08%) 내린 762.54에 개장해 소폭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05억원, 71억원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621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6조4439억원,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6조1724억원이었다.

/연합뉴스



건강한 여름 나세요
광주은행 송중옥 은행장과 임직원, 대학생 홍보대가 30여명은 지난 13일 광산구 운남동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을 찾아 전복삼계탕 200인분을 대접했다. 이날 배식 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이용빈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다. <광주은행 제공>

‘농협 퇴직자 노후 조력’ 광주·전남농협동인회 교육관 개관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22.32(-6.29)
↑ 코스닥	766.08(+2.90)
↑ 금리(국고채 3년)	3.260(+0.049)
↑ 환율(USD)	1312.10(+5.20)

농협 퇴직자들로 구성된 광주·전남농협동인회 교육관이 광주시 북구 금남로에 문을 열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14일 신선했던 광주·전남농협동인회 교육관에서 개관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교육관에서는 농협 퇴직자 600여 명의 교육 복지사업이 추진된다. 회원들이 은퇴 뒤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번 교육관 설립은 전국 13개 지역 동인회 가운데

최초로 시행됐다.

최근 모집한 교육에는 15명 정원에 30명이 지원하며 2대 1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상연 동인회장은 “정보화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미리 6G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속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동인들이 은퇴 후 삶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혜택 확대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0.45%p~0.75%p·가임비 면제·인하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기간 대출금리의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급등에 따라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빌린 대출자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에 달했다.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총 11개 은행이 연장 운용에 참여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

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 포인트에 5년간 2% 포인트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포인트~0.75%포인트로 제한 폭이 내려간다.

가입 비용 또한 대출 금리에 0.15% 포인트~0.2% 포인트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 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시장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금리 갭인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 포인트에서 0.75%포인트까지, 5년간 2% 포인트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선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박서홍(오른쪽 2번째) 농협 전남본부장이 14일 광주송정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여름휴가는 ‘농촌 팜스테이’로 보낼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여름 휴가는 전남 농촌으로

농협 전남본부, 송정역서 ‘농촌체험 팜스테이’ 홍보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4일 광주송정역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름휴가는 농촌체험 팜스테이 마을로 고!고!고!’ 홍보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 회원 20여 명과 농협 직원들은 이날 광주송정역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를 안내했다.

또 최근 가격 하락으로 판로 확보가 시급한 전남 쌀(1kg)과 팜스테이마을 홍보물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25개 마을이 참여하는 팜스테이는 농가에서 숙박하면서 농사·생활·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마을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한 농촌체험관광 상품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침체한 농촌관광산업과 팜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여름 휴가철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 팜스테이 마을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뿌리기업, 전기료 부담 덜어준다

한전, 에너지효율화 상호협력 추진 업무협약

한국전력이 뿌리기업 맞춤형 에너지효율화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기업의 전기요금 12% 인하 효과를 노린다.

한국전력은 14일 정승일 한전 대표이사 사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준호 켄코이앤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기업 에너지효율화 상호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 등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고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조업의 기초로 꼽히는 뿌리기업은 산업구조상 전기 사용량이 많아 노후화된 저효율 설비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뿌리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 업종 등 ‘기반공정 기술’과 사출·프레스·정밀가공·적층제조 등 ‘소재다원화 공정 기술’,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지능화 공정 기술’ 부문으로 나뉜다.

한전은 올해 4월부터 뿌리기업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뿌리기업 대상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사업 지원금을 상향했다.

기존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사업 중 일부 지원

품목(LED, 변압기, 인버터, 사출성형기)에 대해 지원금을 1.5~2.0배까지 올려 지급하고 있다. 지원 비율은 고효율기기 구매비용의 25% 수준이다. 지난 석 달(4~6월) 동안 123개사가 30억원 규모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연말까지 370개사가 90억원 규모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다.

노후화 된 저효율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함으로써 기대되는 전기요금 인하율은 약 12%에 달한다.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균 연간 약 4500만원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한전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인 켄코이앤스에 합동으로 사업 예산 약 20억원 규모 종합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 진단이 완료된 뿌리기업 9개사에 사업제안을 완료한 상태로, 참여 기업들은 평균 연간 약 38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에너지 효율화 및 전력소비 구조개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